

농산물 공동수집장 소득창출 기여

무주군, 판로 찾기 힘든 마을 주민 안정적 판로 제공·소득 증대 마중물 역할

무주군이 영세 농가들을 위해 마련한 농산물 공동수집장이 본격 농산물 출하 성수기를 맞아 판매와 수거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산물 출하 성수기로 각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적기다.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무주군이 직접 판로를 찾기 힘든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관내에는 총 68개 마을에 설치됐다.

군은 NH농협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구천동농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판매와 수급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머리를 맞대고 있다.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콩, 팥, 토

마토, 가지, 더덕, 도라지 등을 품목에 관계없이 마을공동수집장에 내놓으면 농협(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에서 수거해 판매한다. 수거한 농산물은 인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수집 후 도매시장에 출하하며, 경매나 매매 등에 의해 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농산물 농업인에게 대금을 정산, 농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취급품목 제한은 없지만 품목별 포장방법은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군과 농협이 위기에 내몰린 농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인 출하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동수집장은 영세농과 고령농가에 소득 증대의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농민들이 마을별 마련된 수집장에 내

놓은 농산물을 공판장까지 운반해주는 것 외에도 판매까지 대행해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737농가에서 11만8,861kg 농산물 품목을 수집해 4억8,000여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활력과 김영종 과장은 "마을별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 판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출하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농산물 자가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부녀농가의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전국 5개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2일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지원 협력

무주군-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성폭력·성희롱 전문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즉각적이고 발 빠른 상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2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강미경 사회복지과장, 여성긴급전화 1366측은 함미화 전복센터 센터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전문 분야의 자문, 상담, 의뢰 등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를 위해 상호 협력 등을 통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 피해에 대한 상담과 보호조치 안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상호협력 등을 담았다.

이로써 폭력 피해자 및 제보자의 신고 편의성 및 비밀보장을 위해 외부 신고 센터인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해자 보

호를 한층 강화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게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폭력 범죄와 관련된 내부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 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의 상담원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함미화 센터장은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 및 제보자의 신고 편의성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1366 전복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 여성을 위하여 1년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2일 마이산 에코타운에서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2명의 지역·전문 멘토가 참석해 지난 3~5월 동안 진행했던 멘토들의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해 상호 소통시간을 갖고, 청년일자리 팀장이 참석해 진안군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을 홍보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은 새내기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귀농준비, 농사정보, 농촌 생활 등 귀농·귀촌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면 내당마을 34가구 지방상수도 보급

생활용수 수급과 수집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무주군 안성면 내당마을 34가구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안성면 내당마을은 그동안 대형관정을 이용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먹는 물에 대해 안심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당마을은 2018년 배수관로 3.16km를 완료했으며, 2021년 5월, 34가구에 가정급수를 완료하면서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 오염 등으로 생활용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마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안겨줬다.

맑은물사업소는 2일 오후 안성면 내당마을 마을회관에서 황인홍 군수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수도 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존 대형관정을 활용한 생활용수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체계와, 단수시 행동요령, 옥내·외 배관관리 요령, 동파방지, 비상시 연락망 등 지방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주민관리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소상공인 경영위기 개선 앞장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지원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중이며,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거친 후 장수군으로부터 추

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지원된다.

군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대출과 4%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하거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용등급확인서(금융기관 발급)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장수군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2% 자부

담 후 최대 3%이내 이자 지원에서 본인 부담없이 최대 4%이내 이자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극심한 경제난이 막대한 상황으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은빛노인대학서 특강

전춘성 진안군수는 2일 진안성당에서 은빛노인대학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은빛노인대학 대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소통의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특강에서 전 군수는 진안군 노인복지 정책 및 방향, 군정 현안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자유롭게 진행을 이어갔다.

특히 노년층에서 관심이 많은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에 대해 현황, 계획을 알리고, 치매 인구에 대한 관련 서비스 계획에 대한 진안군의 방침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은빛머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은빛노인대학은 진안성당에서 주관해 운영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건강체조, 사물놀이, 민요 등 7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어 호응이 높다.

진안군은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은빛대학(전주교)을 비롯하여 노인대학(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실버대학(제일교회), 영생노인교회(장로교회), 행복한 노인대학(동향봉곡교회)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대학이 개설되지 않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노인대학(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도 운영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노인대학을 운영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노인대학을 통해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이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화된 어린이집,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의사숙소 등 총 10개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

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총 15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아동집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개소 등 총 7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장영수 군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나이가 의료서비스 향상 및 보육환경 개선 등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